**사진은 본문의 내용과 무관.

세계 태권도인 전주에 온다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화산체육관서 13일 개막

국내 1850명 포함 2418명 참여 최정상 선수 대거 출전

전주에서 세계태권도 고수들이 총출동하는 '제7회 2019 전주오픈국제태권대회'가 열린다.

10일 전주시에 따르면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강영수)가 주최·주관하는 '2019 전주오픈국제태권대회'가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전주화산체육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는 국내 150개 팀에서 1850명의 선수단과 해외 26개국 40개 팀에서 344명의 선수단 등 총 27개국에서 2418명이 참여한다.

특히 올해 7회째를 맞는 대회에는 세계 최정상급 태권도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대표적으로 A매치 품새 경기에는 지난해 베트남 호찌민에서 열린 아시아태권도품새대회 우승을 차지한 배용신 선수가 참가한다.

지난 2017~2018년 2년 연속 광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의 우승자인 김철환 선수 등 세계 최정상 선수들이 품새 경기에 출전해 격돌한다.

또 A매치 겨루기 경기에도 국내외 정상급 선수들이 금메달에 도전장을 냈다. 대회는 오는 12일 선수단 등록을 시작으로 13일 개회식과 A매치 품새 경기, 경연 품새 경기가 진행된다. 오는 14일에는 A매치 겨루기가 펼쳐진다.

대회 조직위는 오는 15일 해외선수단을 대상으로 품새 세미나와 시범세미나를, 대회 마지막 날인 오는 16일에는 무주 태권도원 투어를 진행한다.

특히 조직위는 관람객에게 더 많은 재미와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전주대학교·비전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의 태권도시범과 K팝 댄스공연, 난타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도 준비했다.

강영수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 조직위원장은 "2019 전주오픈국제태권도대회는 참가신청 접수 기간 전부터 해외 태권도 수련생들의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면서 "세계에 전주를 태권도 문화도시로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천혜의 자연경관서 서해 물살 가르다'

오늘 전국 시도대항 요트대회 변산반도서 '팡파르'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변산반도에서 요트대회가 열린다.

10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제32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대회'가 11일부터 닷새간 부안 궁항 변산요트경기장 일원에서 1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펼쳐진다.

이번 대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국가대표 랭킹 점수(포인트)가 부여되는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해 치러진다.

경기는 2개 종목(딩기요트·윈드서핑)이며 10계급 36개부로 나눠 진행된다.

3회 연속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하지민(해운대구청)를 비롯해 정보(강릉시청)와 윤현수(경북도청), 이태훈(인천광역시체육회), 조원우(해운대구청) 등 국내 유명 선수들이 대거 참여, 서해 물살을 가르게 된다.

관람객들은 선수들의 모습을 관람정 요트를 타고 생동감 있게 볼 수 있다.

전북요트협회 권익현 회장은 "많은 분들이 해양관광 레저스포츠의 메카인 부안을 찾아 요트대회를 즐겼으면 좋겠다"며 "대회가 닷새간 열리면서 조금이나마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요트협회가 주최하고 전북요트협회가 주관하는 이 대회 개막식은 11일 오후 6시 부안 대명리조트에서 열린다. /장은성 기자

김신욱, 상하이 입단 "최강희 감독과 위기의 팀 구할 것"

중국 슈퍼리그 상하이 선화에 입단한 김신욱(31)이 위기의 팀을 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전북 현대를 떠난 김신욱은 9일 중국에서 열린 상하이 선화 입단식에 참석했다. 등번호는 20이다.

김신욱은 현지 시나스포츠와 인터뷰에서 "곤경에 빠진 팀을 구할 것이다. 나는 최강희 감독님과 함께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해봤다"며 "함께 팀을 도울 것이다"고 말했다.

상하이 선화는 리그에서 3승3무10패(승점 12)로 16개 구단 중 14위에 머물러 있다.

김신욱은 "몸과 마음의 준비를 마쳤다. 중국 슈퍼리그 소속의 여러 팀들과 경기했다. 올해는 강팀인 베이징 궈안, 상하이 상강과 대결했다"면서 "이 상대들을 만나고 싶다. 골을 넣고 승리를 이끌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흥행 '청신호'

입장권 판매율 95%

개회식 등은 전석 매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을 이틀 앞두고 입장권 판매가 목표 대비 95%(판매금액 기준)를 돌파하면서 대회 흥행에 청신호가 커졌다.

10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따르면 대회 개막 이틀 전인 이날까지 입장권 목표 판매량 36만9000매(75억원) 중 31만5000매(71억원)를 판매해 목표 금액의 95%를 돌파했다.

무등산을 배경으로 최고의 명장면을 보여줄 하이다이빙과,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펼쳐지는 오픈워터수영은 일찌감치 입장권 판매 목표량 100%를 넘어섰다.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하게 될 대회 하이라이트 개회식도 이미 매진된 상태이다.

스피드 경기인 경영과 물속의 아름다운 발레를 볼 수 있는 아티스틱수영, 다이빙, 수구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

조직위는 대회 개막전까지 각 기관들의 단체구매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대회기간 동안 시민 등 일반 판매를 더하면 충분히 100%가 판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조직위는 단체판매가 개인판매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경기장별 빈 좌석이 있을 것을 대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입장권 판매량을 실내 종목인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은 목표대비 110%, 실외 종목인 수구, 오픈워터 수영, 하이다이빙은 120%로 늘려 전 경기장을 만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사전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한 관람객들을 위해 대회가 치러지는 당일 경기장 현장에서도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현장매표소를 운영한다.

조직위 조영택 사무총장은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입장권은 목표치의 매진을 넘어 전 경기장의 만석 달성을 예고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호응이 이번 대회를 성공으로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